

제 9 호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하기: 도구쓰기 1 (칠판)

비디오를 이용하여 스스로 강의하는 기술을 개선하고자 할 때 관찰할 사항 중에서 이번 호에는 <칠판쓰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칠판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

칠판 없는 강의실은 “안고 없는 찌빵“이라 할만큼 칠판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칠판을 잘 이용하면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칠판에는 크게 네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ㄱ) 말로는 충분히 묘사나 설명이 안될 때 그림이나 도표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효과.

(ㄴ) 말하다가 요약해서 쓰거나, 쓴 글에 밑줄을 긋거나 원을 그리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액센트“ 효과.

(ㄷ) 습관적으로 말을 빨리 하거나 강의 진도가 성급히 나갈 때 판서를 하여 속도를 늦추고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브레이크“ 효과.

(ㄹ) 전문인/학자의 필기 습관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 효과.

이 네 효과를 최상으로 하려면 칠판에 무엇을 얼마큼 쓰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무엇을 쓰는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칠판에 그대로 판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은 황당해합니다. 따라 쓰자니 쓸 데 없는 일 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뽀족히 다른 할 일도 없으니 대부분 학생들은 끄적 끄적 판서된 내용을 따라 씁니다. (물론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함으로써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강의를 “빼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요.

3. 얼마큼 쓰는가?

강의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판서하기 시작하여 종강 종소리 날 때까지 쉬지 않고 쓰는 교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의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은 칠판에 쓰여진 내용을 베끼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하는 설명을 잘 듣지 못하게 될 뿐더러 생각하고 정돈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속기사를 배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한 훈련이라고 인정합니다.) 둘째, 교수는 판서하는 동안 학생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며 자연히 등을 돌린 채 말을 하게 되지요. 아니 학생들과 무슨 “웬수“지간 입니까! 학생들에게 시선을 주시기 위해서 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호의 눈맞춤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코너>>

지식 전달 위주 (교수님께서 “보여 주는“ 말씀을 학생들이 받아 쓰는) 강의는 구시대에서나 중요합니다. 지식이 흔해 빠진 새시대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꼭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무데서나 쉽게 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 “내용“을 보여 주기보다 지식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컫 <지식 유통 개혁>이라고 말합니다.)